

휴장 한달만에 재개장한 강진우시장 ‘복적’

구제역 위기경보 하향 따라
252마리…거래량 평소 2배

강진우시장이 한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매월 끝자리가 4일과 9일마다 열리는 강진우시장은 지난 2월 9일 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었다.

지난 9일 다시 열린 강진우시장은 오랜만에 개장된 탓인지 출하된 소도 많았지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우시장을 찾은 축산농가와 상인들도 넘쳐났다. 이날은 전체 252마리의 한우가 거래되는 등 평소의 2배가 넘는 가축이 거래됐다. 소가 과잉 출하되면서 이날 소 값은 지난 2월 4일 거래가격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소를 팔기 위해 우시장에 나왔다는 한평곡(성전면)씨는 “밀린 사료 값을 지불하고 싶어도 소를 팔수가 없어 자금유동이 힘들었는데, 이제라도 우시장이 열려 다행”이라며 “소 값을 욕심만큼 받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차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게 웃었다.

이용현 강진군 환경축산과장은 “강진 축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종이



타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2월 9일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강진우시장이 지난 9일 재개장함에 따라 많은 축산농민과 상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한우이기 때문에 타지역이지만 한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농가들이 군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구제역 청정지역 강진군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역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단계

로 하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종식이 선언되는 순간까지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 가축시장은 매월 끝자리가 4일과 9일인 날마다 열리는데 강진군은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해 혈통등록우 출

하자와 구매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완도축협과 협력해 강진우시장을 혈통우 전문 우시장으로 변모시키기로 하며, 지난해에는 매월 1회 마지막 장날인 29일에 혈통우시장을 운영하던 것을 올해에는 하루 더 늘려 매월 14일과 29일에 운영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소규모 한우농가 축협 통한 계통출하 강진군 전국 최초 운송비 50% 지원

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면 축협에서 매월 농가별·공판장별 출하내역을 강진군으로 통보하고, 군에서 출하결과를 확인한 후 농가별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강진군은 이번 지원으로 중·소규모 농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전거래가 줄어 들고, 공판장을 통한 출하율이 높아지는 등 유통단계가 축소돼 축산농가의 소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에서 30마리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농가는 1000여가구로 강진군 한우사육 농가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육하는 한우 중 77%가 암소라는 점에서 강진군 한우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중·소규모 한우사육농가의 경영을 안정화하는 것은 결국 강진군 한우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영암군 하천퇴적토 준설 영농철 이전에 끝낸다

9곳 4600m 4월까지 완료
갈수기 농업용수 확보 용이

영암군이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암군은 13일 “관내 하천중 자연재해 취약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내 퇴적토준설공사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

혔다. 영암군은 이번 사업으로 하천 주변 농경지의 농업용수 취수량 등 수원 확보를 통해 갈수기에도 안정된 관개용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진행된 2017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주요하천 퇴적토 총 6개 읍면, 9개소 하천 4600m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오는 4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또 하천내 퇴적토 준설시 하천 치

수와 이수, 환경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하천생태환경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내 유지수 확보를 위해 하천하상에 높이나 여울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형 하천형태가 훼손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사업 완료시 하천 내 원활한 유수 소통 및 재해피해예방과 군민의 재산·인명피해 방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영암군 65세 이상 대상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영암군은 “이번 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소득계층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안수술비지원은 배내장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이 저가에 개안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실명을 예방하고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배내장 진단을 받은 시력이 0.3 이하로 판명된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65세이상 어르신이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장흥군 봄철 비산먼지 원천봉쇄

건설공사장 방진벽 등
점검반 편성 집중점검

장흥군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각종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설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여부와 방진벽, 세류시설, 운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유무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더욱 증가하는 봄철 건설공사현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하는 등 깨끗한 공기질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충무취재본부장

영암군 신북·군서 농공단지 환경 정비

영암군이 신북과 군서 농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 노후시설 개선에 나서 입주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은 그동안 신북 농공단지에 오수관로 교체 및 보도블록 포장, 가로등 보수공사 등을 진행했다. 군은 또 군서와 신북 농공단지내 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는 등 입주기업의 편의를 돕고 있다.

지난 1986년에 13만2000㎡ 규모로 조성된 신북 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고 12개 업체가 입주해 활발한 기업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군서 농공단지는

지난 1990년 12만8000㎡로 조성돼 13개 업체가 입주, 영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또 오는 4월 준공 목표로 영암을 망호리에 조성되고 있는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식료품, 음료 등 유치)는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의 장래가 되는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등의 안내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영암경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

영암경찰청은 “최근 영암초등학교 앞에서 영암군, 영암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 안전한 통학로 조성 위해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전단지를 배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금지 등 어린이를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홍보했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무단횡단 금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을 알려주고 교통 홍보용품을 선물했다.

이건화 영암경찰서장은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와 선진 교통행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상가 건물 매매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 투자 전문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 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3천(용5천)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건추천

■ 동구 수기동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역 2분
▶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남구 주월동 (상가주택)
토 50평 건 27평

장산초등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9천8백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
월수익 1,000만예상 / 운전역 1분
▶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수완지구 (1층 식당상가)
토 44평, 건 47평
수완지구 국민은행 뒤
주차 완비 / 식당 최고 자리
▶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